

태풍에 전남 해수욕장 '여름장사' 실종

완도 명사십리 주말 피서객 겨우 500명 등 지난해 대비 80.6% 급감...상가 '개점휴업'

#. 토요일인 9일 오전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1주차장. 승용차 6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대형 주차장이다. 하지만 매년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지만 이번 주말에는 고작 200대 가량만 주차돼 열렁하기까지 했다. 매년 이맘때 주말이면 백사장(3.8km)에 수만명의 피서객들이 빼곡히 들어설 정도였지만 이날 오전까지 고작 500명 정도도 되지 않았다.

5년째 완도 명사십리에서 여름 한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장인석(41)씨는 "지난해

만 해도 손님이 몰려 30개 파라솔을 비치하고도 부족했는데 올해는 남은 게 더 많다"면서 "여름 한철 매출액이 8000만원이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13만9000명만 찾은 것으로 집계됐고 해남 땅골순호해수욕장에는 고작 1만2000명의 물놀이객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 장동해수욕장도 전년(15만명)의 5분의 1에 불과한 3만7000명의 피서객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명사십리를 비롯, 신승·예송리갯돌·종리은모래·금일 등 완도 10개 해수욕장을 찾은 전체 피서객도 17만4000명으로 전년(146만4000명)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완도군 신지면 청년회는 "피서 대목을 겨냥해 주차장을 임대하고 평소보다 아

비이트생도 늘렸는데 손님이 줄어 인건비 주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영향으로 관내·신전 해수욕장 등 진도지역 해수욕장 피서객은 7000명에 불과, 전년(33만6000명)의 2%만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휴가 성수기인 주말에 북상한 '나크리', '할롱' 등 태풍 여파가 피해를 가장 키운 요인이라고 해수욕장 상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지역 어촌계 주민 20여명은 "지난해 평상과 몽골 텐트를 운영해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1500만원도 못 벌었다"면서 "피서객들이 오지 않으니 먹거리를 팔겠다는 상인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9 해질 19:34
해짐 19:26 달짐 06:08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

서해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2/31	보성	맑음	19/29
목포	맑음	21/28	순천	맑음	22/31
여수	맑음	23/28	영광	맑음	20/29
나주	맑음	21/31	진도	맑음	21/28
완도	맑음	22/29	전주	맑음	20/30
구례	맑음	20/31	군산	맑음	19/28
강진	맑음	21/29	남원	맑음	19/29
해남	맑음	21/29	축산도	맑음	21/26
장성	맑음	19/29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	0.5~0.5	서	0.5~0.5
	먼바다	북서	0.5~1.0	서	0.5~1.0
남해	앞바다	북서	0.5~1.0	서	0.5~0.5
	먼바다	북서	0.5~1.5	북서	0.5~1.5

◇생활지수

식중독	51
운동	4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25	07:43	14:32	19:51
여수	09:16	03:12	21:53	15:16

◇주간 날씨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	☀	☀	☁	☁	☁	☀
21/30	22/31	23/30	23/28	23/28	23/29	23/30

광주공항 기상실 효율성 낮아 7년만에 폐쇄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 예산낭비 초래 비판도

항공기상청이 군(軍) 기상대에서 제공하는 항공기상자료를 제공하겠다고 광주공항 내 설치해 운영했던 기상실을 폐쇄했다. 매년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운영할 정도의 '필요성'을 갖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항공기상청은 10일 광주(공군) 공항 기상실을 김해공항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두 6개의 기상실 중 지난해 말 포함(해군)·사천(공군) 공항 기상실을 통합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광주·대구공항 기상실(10월)까지 김해공항으로 통합해 항공기상대로 운영한다는 게 항공기상청 방침이다.

기존 광주공항기상실이 항공기상정보 관측 기기도 없는데다, 지금껏 유선 전화로

군에서 받은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제외하면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매년 2200여만원(임차료 1800만원·운영비 400여만원)을 지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폐쇄 이유로 전해졌다.

결국, 아무런 기상 관측 장비도 없이 군 기상대가 들려주는 정보를 받아 전달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쓰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7년 만에 폐기한 셈이다.

정강이 항공기상청 팀장은 "김해공항에 풍속 및 풍향 측정기가 설치돼 있고 인천·김포·제주 다음으로 운항 편수(2013년 8만4528회)가 많아 통합 대상지로 결정됐다"면서 "기상실 통합으로 고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동안 기상정보 제공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탐스런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다. 주민들이 부듯한 표정으로 포도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

1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2동 주민센터 앞의 청포도 나무에 탐스럽게 익은 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열렸다. 주민들이 부듯한 표정으로 포도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민간잠수사 늘린다

대책본부, 수색구역도 재조정

세월호 실종자 수색수색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잠수사 수를 늘리고, 수색 구역도 재조정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0일 진도군청에서 실종자 5차 수색계획 브리핑을 연 뒤, 현재 진행 중인 4차 선미 구역 수색이 종료되면 20일부터 5차 수색을 한다고 밝혔다. 5차 수색에서는 잠수팀별 수색구역

을 재조정해 세월호 선체를 정밀 재수색하기로 했다. 현재 세월호 앞쪽 구역을 담당하던 해군팀을 배 뒤쪽 구역으로, 배 뒤쪽 구역의 팔팔 수중탐을 배 앞쪽 구역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재수색을 위한 민간 잠수사 수도 35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한다. 현재 5개 팀에서 민간잠수사 1팀을 늘려 민간 4팀, 해군 2팀 등 총 6개 팀을 선체수색에 동원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